

민주 당권경쟁 과열...갈등 첨예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당대표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갈등은 점차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

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 후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 캠프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12일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 당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당원

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뒤늦게 공방 소재로 부각됐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는 선거 초반부터 없지 않았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병계 의원도 지난 5일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중 송 후보가 유독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에만 선관위 신고로 강력 대응한 것은 핵심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선관위는 송 후보의 신고에 엄격한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여태까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의원 4명이 모두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해당 의원들에게 구두 경고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와 재발 방지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불거진 공개 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원 4명과 전 지역위원장 1명,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1명 등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었던 최재성 의원은 공개 지지가 논란이

되고 선관위 경고까지 나오자 당규 위반 소지를 차단한 지원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 간의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 신경 쓸 방침이다.

노웅래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막바지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미묘역으로 향하고 있다. 국립 망향의 동산은 해외동포들을 위한 국립묘원으로 위안

부 피해자들의 유해도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내년 3·1운동, 임정 100년...가묘 여전히 비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협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

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 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의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잠음 지속

바른미래·정의당 “의장단·상임위 특활비도 전면 폐지해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잠음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편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받으려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놴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찔잔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금일봉을 주는 것은 없애지만,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것마저 없애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위원장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장병완 평화 원내대표 재선출 “정기국회前 교섭단체 어려워”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장병완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선출했다.

3선의 장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평화당 창당 당시 초대 원내대표로 추대돼 그동안 평화당 원내 전략을 이끌어왔다.

재선출된 장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이날 의총은 ‘8·5 전당대회 이후 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열렸다.

장 원내대표는 재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당 화합을 바

탕으로 민생과 개혁, 평화, 민주라는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교섭단체 복원과 관련해선 “무소속 의원 두 분을 합류시키는 것이 주춤 상태로, 정기국회 전까지 어려워 보인다”라며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세 분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희정 무죄’ 野 ‘비판’ 與 ‘침묵’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 목요일 오전반: 2018. 9. 6.(목)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8. 9. 8.(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전반: 2018. 9. 7.(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 (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 (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 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 환 경 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솔,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걸칠 때 얇은 양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를 혼동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오맹무덤무 무봉함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